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의 혁명서사와 국가적 정체성의 재결집*

임추락(任秋樂)** · 이해영(李海英)***

〈차 례〉

1. 들어가기
2. 한중 수교와 조선족 사회의 지각 변동
3. 전기, 회고록을 통한 조선족의 영웅 호출하기
4. 전쟁 영웅에서 중국의 소수민족 간부로의 성장
5. 국가적 정체성 속의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
6.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의 명인 전기, 평전, 회고록의 대가 등장이 실은 80년대 조선족 문단을 역류한 혁명서사의 또 다른 형태로서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공동체의 국가적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문학적 대응이라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네 명의 조선족의 영웅 주덕해, 최채, 문정일, 립민호의 전기, 평전, 회고록을 중심으로 이러한 조선족의 영웅의 호출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호출된 이들 영웅들이 구상했던 조선족 사회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평전과 회고록은 조선족의 영웅을 호출함으로써 그들의 혁명사를 통해 중조 두 민족인민의 공동 항일의 역사를 회고하고 중국의 항전에 대한 조선족의 공헌과 기여를 확인하였다. 공동의 항일사, 혁명사로부터 조선족이 중국 근대사의 떳떳한 한 주체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은 곧바로 조선족의 중국적 소속감과 중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과 강조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적 소속감에 대한 강조는 한중 수교와 함께 경제적 충격과 혈연적 유대관계 등으로 인해 정체성의 위기와 공동화 내지 해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족 사회에 대한 유력한 문학적 대응이었다.

* 本文系国家社科基金一般项目“当代朝鲜族文学中的革命叙事与国家认同研究(批准号：16BZW179)”的阶段性成果。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제1저자

***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교신저자

평전과 회고록은 또한 광복 직후, 복잡한 국제관계의 역학 속에서 타의에 의해 귀환을 포기하고 중국에 남은 조선족의 전쟁영웅들이 중국 잔류 조선인의 정착과 중국 국민으로의 전환을 이끌어가면서 중국 속의 조선족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갔던 지난한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잔류 조선인이 중국 속의 소수민족-중국 조선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자 중국에 남은 조선족의 전쟁영웅들이 중국의 소수민족 간부로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기억과 회고를 통해 조선족의 역사적 인식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해방 후 조선족의 간부 즉 소수민족의 간부가 된 조선족의 전쟁영웅들은 민족구역자치를 통해 중국이라는 국가적 틀 속에서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국가와 민족의 관계에 대해 치열하게 사유하였는데 소수민족간부가 자민족 혹은 소수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결코 민족 단결이나 국가의 통합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즉 국가적 정체성 속에서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조선족의 향후 나아가야 할 길, 발전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주제어] 조선족 문학, 혁명서사, 주덕해 평전, 최채 평전, 문정일 일대기, 립민호 평전

1. 들어가기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사회에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참조물이 생겼으며 경제적 영역으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영향은 사회, 문화 등 전반적 영역에 걸쳐 조선족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한국은 조선족 사회와 혈연적으로 연결되어있어 건국초기로부터 북한과의 혈연적 유대관계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조선족의 국가적 정체성의 혼란을 또다시 야기할 수 있었다. 건국초기, 북한과 조선족 사회의 관계가 단순히 혈연적 관계로 이어진 것이라면 이 시기, 한국과 조선족 사회의 관계는 경제적 관계와 혈연적 관계가 착종된 상태였으며 여기에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한 전통적인 조선족 공동체의 붕괴 위기가 더해져 한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으로 이시기 조선족 문단에는 한국과 조선족 사회의 관계를 다룬 작품이 대량 창작되었으며 이는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문단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¹⁾ 그런데 이러한 문단의 주류와는 별개

1) 최삼룡, 『조선족 소설 중 한국과 한국인』, 『개혁개방·한중수교 그리고 중국 조선족 사회』, 한중인문학회·한국문화회·중국해양대학교 한국연구소 해외한국학중핵대학사업단 주최, 2012.7. 13~36쪽.

로 이시기 조선족 문단에는 조선족 명인 전기, 평전, 회고록 등이 대거 출현되어 하나의 문단적 경향을 이루게 되었다.²⁾ 전기, 평전, 회고록의 주인공들은 모두 조선반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중국의 국내혁명과 항일투쟁에 기여한 혁명 1세대로서 일부는 건국 이전에 희생되었고 일부는 항전 승리를 전후하여 조선반도로 귀환하였다. 또한 일부는 중국에 남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에 기여하고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서 조선족을 탄생시키는데 일조했으며 조선족 사회의 구심점이 되었다. 전기, 평전, 회고록은 바로 이러한 조선족의 혁명 1세대의 개인 역사를 중국 근대 혁명사 속에서 재조명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조선족의 혁명서사의 또 다른 형태가 되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개혁 개방이후, 즉 80년대 조선족 문단에 역류했던 조선족의 혁명서사가 한중 수교 이후에는 전기, 평전, 회고록으로 그 형태를 바꾸어 또다시 한중 관계 서사가 주류로 된 이시기 조선족 문단에 하나의 경향으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한중 수교 이후, 집중적으로 등장한 조선족 명인 전기, 평전, 회고록은 개별 창작과 조선족 사회의 기획 창작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기획 창작은 조선족 사회의 공동 창작, 집단 창작이라는 측면에서 조선족 사회의 모종의 절박한 수요에 의한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사회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혁명 1세대, 즉 조선족의 영웅이 필요했던 것일까? 조선족 문단은 어떤 방식으로 이들 혁명 1세대를 호출하고 있는가? 본고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출발하여 이주민 1세대로서 조선공산주의자로부터 중국공산당 당원에 가입, 중국의 항일 전쟁에 투신하고 항전 승리 후, 중국에 남아 조선족 사회의 건설에 구심점

2)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문단에는 개별 창작과 기획 창작에 의해 근 20 여권에 이르는 자서전, 인물 전기, 평전 등이 출간되었다. 리희일, 『숨차게 걸어온 길』, 민족출판사, 1997; 김형직, 『격정세월-문정일 일대기』, 민족출판사, 2004; 曲爱国·曾凡祥, 『赵南起传』, 人民出版社, 2003; 李在德, 『松山风雪情』, 民族出版社, 2013; 李华林 述, 张传杰·孙静丽 著, 『征途-华林忆稿』, 辽宁民族出版社, 1995; 柳燃山, 『불멸의 지사 심여추평전』, 중국조선민족문화예술출판사, 2002; 柳燃山, 『불멸의 지사 류자명평전』, 연변인민출판사, 2003; 曹文奇·郑武, 『항일명장 량세봉』, 민족출판사, 2009; 柳燃山, 『불멸의 영령-최채』, 민족출판사, 2009; 李光仁, 『红军将领杨林』, 民族出版社/延边人民出版社, 2012; 《주덕해의 일생》 집필조, 『주덕해의 일생』, 연변인민출판사, 1988; 최국철, 『주덕해평전』, 연변인민출판사/민족출판사, 2012; 김호웅, 『이 세상 사람들 모두 형제여라-림민호 교장의 일대기』, 민족출판사, 2009 등.

역할을 했던 세 명의 조선족의 영웅 주덕해,³⁾ 최채, 문정일 및 광복직전까지 조선공산주의자로 조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고 다시 중국에 돌아와 조 직을 찾다가 해방을 맞고 그대로 중국에 남아 중국공산당에 가입, 조선족 사회 건설에 기여했던 립민호의 전기, 평전, 회고록을 중심으로 이러한 조선족 의 영웅의 호출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호출된 이들 영웅들이 구상했던 조 선족 사회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한중 수교와 조선족 사회의 지각 변동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조선족 사회는 개혁개방의 심화와 함께 경제, 문화, 사회적 구조 등 영역에서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켰는데, 그중 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동 인구의 급팽창이다. 중국 정부의 통계에 의 하면 이 무렵 조선족은 중국 각 민족 중에서 이동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민족 중의 하나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이동 인구의 급팽창은 전통적인 조선족 공동체의 해체와 공동화의 위기를 가져왔다.⁴⁾

3) 이중 주덕해의 경우, 1987년에 『주덕해의 일생』이란 제목으로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전기가 출간되 었고 2012년에는 “중국조선족명인평전시리즈”의 일환으로 최국철에 의해 『주덕해의 평전』이 연변 인민출판사와 민족출판사의 공동 기획으로 출간되었다. 그런데 2012년 출간된 『주덕해의 평전』의 경우, 주덕해의 광복이전의 경력, 즉 항일전쟁시기의 경력이 극히 소략하게 기술되어있는데 이는 아마 1987년 판 『주덕해의 일생』에서 상세히 기술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고는 한중 수교 이후라는 원칙에 의해 2012년에 출간된 『주덕해의 평전』을 주 텍스트 로 삼고 1987년의 주덕해의 전기는 참고로 하되, 항일전쟁시기의 경력은 주로 1987년 전기에 의존 할 것이다.

4) 1996년 통계에 따르면 흑룡강성(黑龍江省) 내 924개 소수민족마을 전체 노동력(소수민족 71.8%) 중 반년 이상 외출하여 근무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9.7%를 차지했는데, 491개 조선족마을 전체 노동력(소수민족 96.1%) 중 외출노동자는 19.4%로 집계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내 283개 민주 족 마을(소수민족 노동력 58%)의 외출노동자는 전체 노동력의 4.2%에 불과했다. 또한 78개 몽골 족 마을(소수민족 노동력 54.2%)과 44개 다우르족 마을(소수민족 노동력 46.1%) 그리고 13개 회 족 마을(소수민족 노동력 67.2%)의 외출노동자는 각각 전체 노동력의 1.5%, 2.5%, 6.1%를 차지했 다. 이 밖에 흑룡강성 총 924개 소수민족마을의 외출노동자 30001명 중, 491개 조선족마을의 외출 노동자는 2만 2630명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黑龍江省民族工作統計資料(1996년도)』, 흑 룡강민족사무위원회, 1997, 1면 참조. 鄭信哲, 『中國朝鮮族發展現狀與對策』, 郝時遠·王希恩 편, 『民族發展藍皮書——中國民族發展報告(2001~2006)』, 社會科學文獻出版社, 419쪽 재인용.)

중국 조선족 사회의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일방적인 인구유출이 주요특징이며⁵⁾ 유출 방향에 따라 국내적 이동과 초국가적 이동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적 이동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산재된 농촌 거주자들의 인근 도시지역을 향한 이동이다. 이는 동북 3성 내에서의 이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동북 3성 이외의 지역으로의 이동이다. 여기에는 북경(北京)이나 상해(上海), 천진(天津)과 같은 대도시로의 이동과 청도(靑島), 위해(威海), 연태(煙台) 등 연해도시로의 이동이 포함된다.⁶⁾ 청도의 경우, 1982년 제3차 전국 인구조사를 실시했을 때 청도에 상주했던 조선족 인구는 83명에 불과했고, 1990년까지만 해도 50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 제5차 전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도의 조선족 상주인구는 1만 4491명에 이르렀다. 즉 청도시의 조선족 상주인구가 10년 새 거의 30배나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⁷⁾ 대도시와 연해도시로의 대규모 이동은 국내적 이동으로 분류되지만 한국과 뿔뿔이 뿔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경제·문화 교류가 갈수록 활발해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대거 중국에 진출했다. 이는 중국 동북지역의 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어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대다수가 중국 연해지역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수교 이전까지 한·중 양국은 오랫동안 서로 인정하지 않고 왕래하지 않았으므로 한·중 무역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지 못했으며 대만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인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은 중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이는 중국 조선족의 젊은이들에게 대도시 진출의 기회가 되었는데 한국 기업들은 통역 및 중간 관리직으로 조선족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조선족이 중국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하다는 점 외에, 조선족 사회 전반의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도 여기에 일조했다.⁸⁾ 이처럼 중국 내 조선족의 연해지역 대도시로의 이동

5) 유입 인구도 있지만 유출 인구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6) 권태환·박광성, 『조선족의 대이동과 공동체의 변화: 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권태환 편,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37~38쪽.

7) 朴勝鎮, 『中韓建交對朝鮮族人口流動的影響』, 『黑龍江民族叢刊』 제133집, 2013, 39쪽.

8) 1982년 조선족 1만 명당 대졸자는 157.4명(전국 42.8명), 대학 수료자 및 재학자는 65.2명(전국

역시 한중수교의 영향에 인한 것이었는데 이는 수많은 조선족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기회가 되었지만 역으로 조선족 사회의 급격한 해체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조선족의 초국가적 인구이동은 주로 한국으로의 이동이 주류를 이루게 되며, 이동 형식이 친척방문, 노무송출, 국제결혼, 유학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⁹⁾ 이중 노무송출과 국제결혼이 조선족 인구의 한국 유입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우선 노무송출에 대해 보기로 하자.

1980년대 중국 농촌에서는 가정연산승포책임제(家庭聯產承包責任制)가 보편화되어 생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농촌 잉여 노동력이 엄청나게 생겨났다. 이와 함께 동북 노후공업기지(東北老工業基地)의 전반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아 조선족 사회의 취업갈등이 매우 두드러졌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 노동력이든 도시 노동력이든 외부취업에 대한 욕구가 뚜렷하게 증가했다.¹⁰⁾

이와 동시에 한국은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산업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인력난이 갈수록 극심해졌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1993년에 한국정부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의 발전된 경제와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수준이 조선족 인력 수출을 유치하는 직접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중국 국내 개혁개방의 ‘추진력’과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력’의 상호작용으로, 조선족 사회에는 노무송출의 열풍이 일었다. 게다가 조선족은 한국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이점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그들이 한국 노동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노무송출은 조선족동포의 불법 체류현상을 낳았는데 90년대 초반부터 2004년 ‘채외동포법’ 수정과 2007년

15.5명), 고졸자는 1857명(전국 662.2명)에 달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조선족 사회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더욱 향상되었다. 1000명당 고등교육을 받은 자는 48명에서 85명으로, 고교교육을 받은 자는 282명에서 333명으로 늘었다. 黃榮清·趙顯人, 『20世紀90年代中國各民族人口變動』, 民族出版社, 2004, 237쪽; 安成浩, 『朝鮮族鄉村社會的集中村建設及其社會共同體的質變』, 『當代韓國』 2014년 제2호, 66쪽 재인용.

9) 박경화·박금혜, 『민족과 국민사이: 조선족의 초국가적 이동과 민족정체성의 갈등』, 『한국학연구』 제39집, 2015.11, 452~456쪽.

10) 管延江, 『中國邊境地區對韓國勞務輸出問題研究』, 연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42쪽.

재외동포의 ‘방문 취업제’ 실시로 조선족의 한국 출입국이 자유로워지기 전까지 한국사회에는 조선족의 불법체류 현상이 난무했고 이는 역으로 조선족 사회의 혼란과 해체를 가속화 시켰다. 수많은 조선족 가정들이 보다 나은 수입을 위해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했고 이는 그대로 조선족 사회에, 가정의 파탄과 자녀 교육의 황폐화로 이어졌다. 2004년의 ‘재외동포법’의 수정과 2007년의 재외동포의 ‘방문 취업제’ 실시로 조선족의 불법체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중국에 송금하여 중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벌어서 중국에서 소비하고, 한탕주의와 지나친 과소비로 힘들게 번 돈을 탕진하고 다시 한국에 일하러 가는 생활을 반복하다보니 조선족 사회의 재생산구조는 엄중한 영향을 받았으며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공동체의 기반이 약화되었으며 사회 공동화도 가속화되었다.

국제결혼의 경우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조선족 여성의 부모까지 한국에서 일하도록 초청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별다른 출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선족 여성들에게는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지름길인 셈이었다. 특히 2007년 재외동포의 ‘방문 취업제’ 실시로 한국 방문 취업이 자유로워지기 전까지 국제결혼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부모들도 초청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기도 했다. 이는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애정을 기초로 하기 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추국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 되도록 했으며 심지어 한때 조선족 사회에는 한국인과의 ‘가짜 결혼’이 유행하기도 했다. 한국인과의 ‘가짜결혼’은 역으로 중국 조선족 남편과의 ‘가짜 이혼’으로 이어졌으며 ‘가짜 이혼’이 진짜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하면서 조선족 사회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엄중하게 훼손되었다. 또한 조선족 사회 특히 조선족 농촌들에는 결혼 적령기의 여성들이 전부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대도시로 가거나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동함으로써 남녀의 성비가 엄중하게 파괴되는 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¹¹⁾ 2007년

11)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국제결혼 통계를 보면 1996년부터 2001년 사이 총 혼인등록 수는 14316명으로, 이중 98%가 한국으로 나타난다. 매년 2300명이 넘는 수의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혼인이동을

3월에 중국 조선족과 옛 소련 지역 거주 고려인들이 한국 정부가 현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면 5년 동안 한국 취업 비자를 추첨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문 취업제’가 제정되면서, 조선족들의 한국 근무 기회가 크게 늘었다. 해마다 증가했던 조선족 결혼이민자 수가 이로부터 매년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그만큼 국제결혼이 한국으로의 입국을 위한 편승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었음을 반증해준다.¹²⁾

위와 같이 조선족의 대규모 인구이동은 도시화 건설 추진, 농촌의 취업 스트레스 해소, 민중의 생활수준 향상 등 면에서 조선족 사회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찾아진 일방적 인구유출은 조선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조선족 농촌마을의 공동화(空洞化), 젊은 노동력의 유출로 인한 조선족 농촌 인구의 출산을 저하, 성비 불균형, 고령화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생활방식의 변화와 한국 현대 사회문화의 지속적 유입으로 중국 조선족들은 유례없는 국가적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3. 전기, 회고록을 통한 조선족의 영웅 호출하기

이처럼 조선족 사회가 외부의 충격과 내부의 구심력의 약화로 공동화와 해체의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개별 창작과 조선족 사회의 기획 창작으로 조선족 명인 전기, 회고록, 평전 등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러므로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기획 창작물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기획 의도를 통해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2002년부터 기획 출간되기 시작한 “인물조선족사”는 제1집으로 『불멸의 지사 심여추 평전』을 출간하는데 그 서문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하고 있는 셈이었다.(이병기, 「연변 조선족 농촌사회의 인구이동 실태와 그 시사점」,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3권 제3호, 2006, 770쪽)

12) 박경화·박금혜, 앞의 글, 454쪽.

인물조선족사는 《20세기 중국조선족력사자료집》의 한 부분으로 인물을 통해 보는 조선족의 력사이다……

올해는 연변조선족자치주 건립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 뜻깊은 해에 《심여추평전》을 출간하여 선물하게 되어 감개무량한 기분이다.

바위벼랑에 뿌리박고 자란 나무를 보면 비장한 기분이 들 듯이 중국 조선족력사의 힘찬 숨결을 느끼면 사뭇 뿌듯한 자호감에 가슴이 벅찬다. 그 력사의 숨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맥박을 맞출 때 필연코 우리의 내일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불멸의 지사 심여추는 중국 조선족과 더불어 영생하리라¹³⁾

위의 인용문을 통해 우리는 “인물조선족사”가 연변조선족자치주 건립 5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조선족의 선각자 인물을 통해 조선족의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조선족의 오늘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조선족의 더욱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문의 끝인 “불멸의 지사 심여추는 중국 조선족과 더불어 영생하리라”는 문구는 조선족 영웅의 호출을 통해 조선족 사회가 기대하고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조선족 사회의 영생 즉 조선족 사회의 영구 존속에 대한 열망인 것이다.

2009년부터 기획된 “중국조선족명인평전시리즈”는 2009년 8월 최채, 림민호 등의 평전을 펴내며 그 서문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중국 조선족은 이민민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온 시간은 비록 길지 않지만 그 와중에 자신에게 속하는 독특한 문화와 찬란한 력사를 창조하였다. 이 문화와 력사를 창조하는 과정에 우리 중국 조선족은 저명한 명인들을 적지 않게 배출하였다. 이런 명인들은 중국 조선족의 문화와 력사의 갈피갈피속에 자기의 빛나는 이름을 새겨놓았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빛나는 이름과는 달리 우리 민족의 성원들속

13) 류연산, 「서문」, 『불멸의 지사 심여추평전』(인물조선족사1), 연변인민출판사, 2002.

에 그리 널리 그리고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정리, 기술함에 있어서 그 민족의 유명 인물을 다룬 평전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¹⁴⁾

위의 인용문은 중국 조선족이 이민 민족임을 밝히고 있으며 중국 땅에서 살아온 시간이 길지 않지만 조선족만의 독특하고 특수한 문화를 이루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조선족 사회가 이미 적지 않은 명인들을 배출하였으나 그들이 민족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안타까움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한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정리, 기술함에 있어서 그 민족의 명인 평전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족 명인들을 널리 조선족 사회에 알리는 것을 통해 조선족의 후대들에게 조선반도와는 구별되는 중국 조선족의 역사를 알리고 그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며 또한 조선족 사회가 조선반도와는 구별되는 조선족만의 특수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공동체임을 강조하려는 것이 “중국조선족명인평전시리즈”의 기획 의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채의 평전은 조선족 사회에 대한 최채의 절절한 기대를 인터뷰 말미에 육성 그대로의 형식으로 호소하고 있다.

나는 리직후에 두문불출하고 정사(政事)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방송이나 친구들을 통해 가끔 연변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조선족들은 한국이나 외국으로 건너가 일해 돈을 벌고 있다더군요. 그런데 외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와서 산다는 것은 잠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든든한 삶의 터전이 될수 없지요. 만약 떠돌이 의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덕대돈을 움켜질 도박의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조선족은 사회발전에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소수민족들도 조선족사회와 마찬가지로 격변기의 모지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족을 비롯한 56개 민족이 똑같이 겪는 시대적 변화의 모습입니다. … 모든 소수민족간부들은 민족의 운명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

14) 류연산, 『불멸의 영령-최채』(중국조선족명인평전시리즈), 민족출판사, 2009, 1쪽.

으로 사업해야 할 것입니다...¹⁵⁾

위의 인용문에서 최채는 조선족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한국이나 외국에 나가 ‘덕대돈’을 벌려는 도박의식, 즉 일확천금의 의식을 비판하면서 자기의 삶의 터전에 안주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와서 살려는 떠돌이 의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조선족은 사회의 발전에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건국 초기부터 중국 내 조선족 공동체를 구상하고 기획하고 일구어온 혁명1세대의 영웅으로서 애써 일구어놓은 공동체의 자생적 기반과 국가적 소속감이 한국 또는 외국 출국을 통한 외화벌이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조선족만이 아닌 한족을 비롯한 중국 내 모든 민족이 겪고 있는 격변기의 변화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소수민족 간부들이 사명감을 갖고 그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민족 영웅의 호출이 필요한 시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덕해, 최채, 문정일, 립민호는 모두 이주한 중국 땅에서 조선공산주의자로서 반일투쟁에 종사하며 그중 주덕해, 최채, 문정일은 조선공산주의자의 반일투쟁에 한계를 느끼고 기꺼이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항일투쟁에 뛰어들어 중조 두 민족의 공동항일전선에서 피흘려 싸웠다. 이들은 모두 조선의용군 및 조선독립동맹출신으로 태항산과 연안의 팔로군 휘하에서 항일투쟁에 종사하다가 ‘8·15’ 해방을 맞았다. 립민호는 조선공산당의 파견으로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서 공부한 후, 다시 조선에 잠입하여 적색노동조합을 만들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7년간 복역하였다. 만기출옥 후, 연변에서 광복을 맞으며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다. 주덕해, 최채, 문정일은 모두 조선의용군 출신이지만 그들이 조선의용군에 가입한 계기와 경로는 각이하다. 아래에 출신배경, 조선공산주의자로서의 성장과 중국공산당 가입, 연안에서의 조선의용군 시절, 서대문 형무

15) 류연산, 위의 책, 246~247쪽.

소와 중국 동북에서의 은둔 등 측면으로 나누어 이들이 항일투쟁의 와중에 조선공산주의자 내지 반일투사로부터 중국공산당 당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주덕해는 야학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로부터 맑스-레닌주의 교육을 받고 고려공산주의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되며 조선공산당(ML파) 만주총국의 지시로 북만의 념안 일대에서 지하투쟁에 종사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중국공산주의청년단에 가입하였다. 주덕해는 중공만주총행동위원회의 지휘 하에 념안현 현위기관의 연락원으로 사업하였으며 좌경맹동주의로선의 영향으로 단행한 무장폭동에서 지도자와 전우를 잃는 아픔을 겪게 된다. 그뒤 주덕해는 현위기관의 파견으로 동경성 남호두 일대에서 지하사업에 종사하게 되며 거기서 조직의 심사를 거쳐 드디어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게 된다.

《구당위에서는 현단위의 의견에 근거하여 동무의 입당신청을 토론하고 비준하였소. 나는 지금 구당위를 대표하여 이 비준결정을 정식으로 동무한테 전달하는 바요. 이제부터 동무는 중국공산당의 한 당원이요.》

찰나 기슭이의 두눈에는 맑은 이슬이 반짝이었다....

《전동무, 저를 양성해준 당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어제까지도 혁명을 갈망해오고 혁명투쟁에 몸을 바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턴 중국공산당의 한 당원으로 되었습시다. 공산주의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혁명을 위해서라면 불바다에 뛰어들고 단두대에 오른다 해도 전 절대 물러서지 않으렵니다. 이것이 한 공산당원인 제가 당앞에 바치는 보증입니다. 당조직에서 저를 신임해주고 고탈해주기를 바랍니다.》¹⁶⁾

주덕해가 중국공산당에 가입하는 장면이다.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기 위한 오랜 숙원을 실현하게 된 주덕해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공산주의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을 결심한다. 그에게 있어서 중국공산당에 가입하는

16) 《주덕해의 일생》 집필조, 『주덕해의 일생』, 연변인민출판사, 1988, 62~63쪽.

것은 혁명을 위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협애한 민족주의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조선의 독립과 중국의 혁명, 공산주의 실현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며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여 영도를 받는 것은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길이었다. 그 뒤, 주덕해는 밀산 항일유격대 밀영에서 투쟁하다가 당조직의 결정으로 쏘련 유학을 가게 되며 1937년부터 1939년 2월까지 모스크바 동방로동대학에서 이론과 군사과목을 공부하고 1939년 3월 중국으로 귀국한다. 주덕해는 귀국 길에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혁명의 성지 연안에 이르게 된다.

이때 연안은 국내외에서 주목하고 있는 항일전쟁의 보루였으며 혁명의 중심지였다. 여기에는 수천수만의 중화민족의 우수한 아들딸이 집결해있었으며 수많은 열혈청년들이 혁명에 투신하고자 매일과 같이 중국의 각지로부터 끊임없이 혁명하려고 찾아들고 있었다. 그들은 당중앙과 모택동동지의 령도밑에 영웅히 싸우고 있었다.

연안의 모든 것들을 보는 주덕해의 마음은 격동으로 부풀었다.

(중국의 항일전쟁의 승리의 희망은 여기에 있었구나!)

주덕해는 보탑산을 우러러보며 마음속으로 이런 신념을 굳게 다지였다.¹⁷⁾

연안에 도착한 주덕해의 격동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연안에는 당중앙과 모택동이 있으며 중국 혁명의 중심지로서 중국의 해방을 원하는 중화민족의 아들딸들이 혁명을 위해 연안에 찾아오고 있었다. 주덕해는 연안에서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의 희망을 보았으며 그것은 곧 조선민족의 해방과 조국 조선의 독립과 연결된 것이기도 했다. 주덕해는 연안에서 항일군정대학 간부 훈련대 동북간부훈련반, 연안 해외연구반 등에서 공부했으며 1943년 연안에 조선혁명군정학교가 서자 군정학교의 학교당위 위원, 교무위원 겸 총무처장으로 사임하였다. 조선혁명군정학교는 “중공중앙군위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17) 《주덕해의 일생》 집필조, 『주덕해의 일생』, 위의 책, 116쪽.

조선혁명을 위한 후비간부를 양성하는 학교였”¹⁸⁾는데 이를 통해 연안의 팔로군 휘하에서 항일전쟁에 투신한 조선의용군의 최종 목표가 조선혁명 즉 조선의 독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주덕해는 군정학교에서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는 승리하였다! 일본놈들은 망하였다!》

찰나 수백명이 너무도 기뻐서 열광적인 목소리로 환성을 질렀다. 그 환성은 산골짜기를 들썩하게 울리며 라가평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학생들속에 서있는 주덕해는 격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동무들과 함께 목놓아 웨치었다. 당시 군정학교 조직교육과에서 사업하던 작곡가 정률성은 밤도와 작사, 작곡하여 조선의용군행진곡 《조국향해 앞으로》를 창작하였다.¹⁹⁾

연안에서 해방을 맞이한 조선의용군 전사들의 격동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선의용군 전사들이 연안에서 일본의 패배의 소식을 들었을 때 “조국향해 앞으로”라는 조선의용군 행진곡을 창작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연안에서 중국의 항일전쟁에 투신했던 조선의용군 전사들의 최종 목표는 조선의 독립 즉 조국의 해방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 시기의 주덕해 역시 이들과 같은 입장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최채의 평전은 그의 아버지 최중호의 일대기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최중호가 한국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자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낸 김구의 제자로 반일독립운동가이자 조선인 공산주의자였으며 중국 공산당 당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채의 평전은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아버지는 원래 민족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공산주의자로 전변해 1925년에 조선공산당에 가입했고 1927년에 중국공산당원으로 넘어갔습니다.

18) 《주덕해의 일생》 집필조, 『주덕해의 일생』, 위의 책, 118쪽.

19) 《주덕해의 일생》 집필조, 『주덕해의 일생』, 위의 책, 123쪽.

1927년 3월 북벌전쟁(北伐戰爭) 기간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함으로써 상해 조선공산당 책임자인 홍남표(洪南杓), 리운형(呂運亨) 등과 상해 한국림시정부 리동녕(李東寧)이 협의해 한국유일독립당 상해축성회를 조직했습니다. 아버지는 축성회 회원이 되었지요. 1929년 10월에 축성회가 해산되고 한국독립운동자동맹이 설립되었는데 아버지는 위원 겸 조직부장이 되었습니다. 후에 상해한국독립운동자동맹이 동방반제동맹에 가입하면서 아버지는 상해한인반제동맹 성원으로 되었고 1931년에 중국공산당 상해한인지부서기로 되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상해에 거주하는 조선인공산주의자들로 조직된 중국공산당 강소성위원회 법남구(法南區, 프랑스조계지) 한인지부의 책임자로 발탁된거지요. 공산국제의 ‘일국일당제(一國一黨制)’를 좇아 중국내에서 활동하던 조선공산당이 중국공산당으로 넘어가면서 인성학교의 교원들 대부분이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되었답니다. 이리하여 우리 학생들은 공산주의교육을 받게 되었지요. 학교내에 이동단조직이 나왔고 나도 이동단원이 됐답니다. 독립운동사상과 공산주의사상교육을 받고 두가지 정신으로 무장하게 됐지요. 그러나 이 두가지 사상이 반일독립운동에 있어서 결코 모순되지는 않았습니다.²⁰⁾

위의 인용문은 그의 아버지 최중호가 민족독립운동가에서 조선공산주의자로 전변, 다시 중국공산당에 가입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1931년 무렵 상해에 거주하는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중국공산당 강소성위원회 한인지부를 결성한 것은 만주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던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1931년 무렵 전 중국적으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중국공산당 가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의 아버지 최중호는 조선민족의 반일독립운동을 위해 망명했던 중국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여 중국 혁명에 투신했던 많은 조선인 혁명가들이 걸었던 길을 견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두고 당시 독립운동사상과 공산주의사상이 반일독립운동에 있어서 결코 모순되지 않았다는 최재의 술회는 의미심장하다. 이는 애초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중국공

20) 류연산, 『불멸의 영령-최재』(중국조선족명인평전시리즈), 앞의 책, 32~33쪽.

산당에의 가입과 중국 혁명에의 투신을 통해 최종적으로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루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최채는 자신이 훗날 공산주의를 신봉하게 된 계기가 인성학교 교육과 아버지의 직접적인 영향이었다고 밝힌다.²¹⁾ 최채는 1937년 중경에 도착하여 아버지 최중호와 친분이 있는 약산 김원봉을 찾아가 조선의용대에 참가하게 되었다. 최채는 조선의용대와 함께 중경에서 북상하여 태항산근거지에 이르며 태항산에서 팔로군과 함께 1942년 5월 태항산근거지에 대한 일제의 “포위토벌”에 대항한 반“소탕”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반“소탕”전에서 석정, 진광화 등 조선의용대 전우들을 잃는 슬픔을 겪게 된다. 최채는 1945년 8월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고 화북조선독립동맹 진서북분맹 주임을 맡아 1946년 5월까지 태원시 국민당 점령구에서 지하당 공작을 했으며 적후에서 해방을 맞았다.

주덕해나 최채가 어린 시절 공산주의자 선생님 혹은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사상을 갖게 되고 혁명의 길에 들어섰던 것과는 달리 문정일의 성장과정은 낭만 그 자체에 가깝다. 문정일은 세 번의 실패 끝에 세 번째 관내 행에 성공하여 남경에서 김구, 김약산 등 독립운동가들을 만나며 공산주의적 성격을 띤 “시월회”에 참가하여 맑스-레닌주의 저서를 공부한다. “7·7사변”이 일어나자 군사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중앙군관학교 특별훈련반에 입학하게 되며 1938년 10월 10일 한구에서 창립된 조선의용대에 가입한다. 문정일은 북상하여 연안으로 가는 도중 낙양 국민당 제1전구에서 조선의용대 낙양분대 분대장 겸 조선청년전위동맹 책임자를 맡아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후방에서 전선으로 가는 일을 도와주었으며 1940년 3월 낙양에서 중국공산당에 가입한다. 팔로군 구역에 넘어간 후, 1942년 5월, 문정일 역시, 태항산근거지에서 반“소탕”전을 겪으며 1942년부터 시작된 ‘연안정풍’시에는 조직심사 사업을 책임지고 혁명을 위해 연안으로 찾아오는 조선인 혁명가 및 조선청년들을 심사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경성제대 교수이자 남로당의 주요 책임자였던 김태준과 그의 아내 박진홍이 연안으로 갈 때도

21) 류연산, 위의 책, 32쪽.

역시 그가 조직심사를 하였다고 회고하였다.

위의 주덕해, 최채, 문정일 등이 광복 이전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하며 연안과 태항산 근거지 등 팔로군 지역에서 해방을 맞이했던 것과는 달리 립민호는 연변에서 해방을 맞이하며 해방이후야 중국공산당에 가입한다. 립민호는 만주고려공산청년회 가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혁명의 길에 들어섰으며 1926년 6월 10일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였다. 조직의 파견으로 북만조선인청년총동맹 본부가 있는 흑룡강 주하 하동마을로 이동했으며 방정현에서 사업하다가 조선공산당 중앙의 파견으로 모스크바 동방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거기서 4년간 공부한 뒤, 국제직업동맹 중앙본부로부터 조선의 함흥과 홍남 지구에 가서 적색노동조합을 만들라는 임무를 맡고 조선에 잠입하였다. 함흥에서 엽장수로 위장하고 지하사업을 하다가 1년 뒤, 일경에게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이송되어 7년간 복역하게 된다. 1940년 9월 만기 출옥하여 부모님이 계신 중국 화룡현으로 돌아왔으며 거기서 애타게 조직을 찾았으나 동북지역에서 활동하던 항일부대들이 소련 연해주 쪽으로 옮겨갔으므로 찾을 수 없었다. 소련홍군의 동북 진군으로 곧 해방을 앞둔 1945년 8월 12일, 립민호는 일제의 전시치안법(戰時治安法)에 따라 아내, 세 살짜리 아들과 함께 유치장에 구속되었으며 해방 이튿날인 8월16일 이른 아침에야 감옥에서 풀려나와 만세를 부를 수 있었다. 립민호는 해방 후, 1945년 10월에야 비로서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게 된다.

이처럼 조선의용군으로 중국공산당과 팔로군에 합류했거나 조선공산당 당원으로 국제공산당의 파견을 받고 조선 국내에서 지하투쟁에 종사하다가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했거나를 막론하고 이들 모두는 각이한 경로를 걸어왔지만 그 최종 목표는 하나였다. 즉 조선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독립을 위한 것이다. 이 최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들은 중국 혁명과 중국의 항일전쟁에 투신하였으며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다. 또한 조선과 중국을 넘나들며 반일투쟁을 견지했다. 이들 조선인 혁명가들은 중국의 항일전쟁의 승리가 곧 일제로부터 조선을 해방하고 조선의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으며 중국과 조선 두 나라는 운명 공동체라고 보았다.

중국공산당 측 역시 중국 항전의 승리가 조선민족의 해방과 조선의 독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고 중조 두 민족 인민의 공동 항일의 목표를 충분히 긍정하였다. ‘백탄대전’이 끝난후 모택동은 항일투쟁이 승리한 이후를 대비하여 조선인간부들에게 “반드시 자기 민족의 간부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라”²²⁾고 지시했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 측이 항일전쟁시기부터 중국 항전의 승리와 함께 그 연장선 상에서 최종적인 목표로 조선의 독립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공산당 중앙과 팔로군 지휘부에서는 조선의용군을 최대한 보호하고 전투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을 그 원칙으로 했는데 1942년 5월의 그 가열처절한 반“소탕”전에서도 팽덕회는 전투에 참여한 조선의용군에게 “여기에 우리 중국사람은 많아도 조선동지들은 얼마 안되니 한사람이라도 희생되면 그 손실이 더 큼니다. 조선동지들은 앞으로 다 간부나 지휘원이 될 사람들입니다”²³⁾고 하면서 철퇴를 명령한다. 이는 중국공산당 측이 조선의 독립과 해방의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대비하고 고려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팔로군 측에 소속되어있는 조선의용군 전사들을 군사적, 이론적, 정치적으로 간부나 지휘원의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육성하되 이들을 중국의 전장에서는 최대한 전투에 투입시키지 않고 조선 해방의 준비세력으로 보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42년 9월21일부 연안 《해방일보》는 “중조인민 영원히 어깨걸고 싸우리라”는 제목아래 5월 반“소탕”전에서 희생된 “재중조선렬사추도회 특기”를 실었다.

만가가 울리자 온 장내는 더없이 슬픈 추모 분위기에 잠겼다.

맞은편 벽에는 진광화, 석정 등 련사 11명의 유상이 걸려있었다....

한일래, 최철호, 석정, 호유백, 립평, 엽홍덕...그들은 중국 장강 이남과 이북의 싸움터와 여러 대도시들 그 어디나 불멸의 발자국을 남겼다.

장중과동지가 련사들의 락력을 소개했다.

22) 류연산, 앞의 책, 79쪽.

23) 김형직 주필, 『격정세월-문정일 일대기』, 민족출판사, 2004, 102쪽.

주덕총사령께서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주석대에 오르셨다.

“...렬사들을 추모하는 오늘 우리는 혁명의 경험교훈을 잘 총화해야 합니다.

...동무들은 리홍광동지를 아십니까? 그는 조선사람입니다. 동북의용군에 참가한 사람은 그 동무뿐이 아닙니다.”

...그대들의 11명의 전우는 일본 파쇼를 쳐 물리치는 중국의 싸움터에서 희생되었다.²⁴⁾

중국공산당 지도부와 팔로군 총부 및 각 변구 지휘부, 중국 민중단체가 연합하여 거행한 연안 5월 반“소탕”전에서 희생된 조선의용군 전사들에 대한 추도회 정경이다. 팔로군의 1인자인 주덕 총사령이 친히 읽은 추도사를 통해 동북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중국의 항전에 투신하여 피흘려 싸운 조선 혁명가들의 위훈과 공헌에 대한 중국 공산당 측의 충분한 긍정을 볼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의 항일전쟁에서 수많은 조선인 혁명가들이 보귀한 생명을 바쳤음을 상기하고 있다.

이처럼 평전과 회고록은 조선족의 영웅을 호출함으로써 그들의 혁명사를 통해 중조 두 민족인민의 공동 항일의 역사를 회고하고 중국의 항전에 대한 조선족의 공헌과 기여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조선족의 광복 이전의 역사를 중조 두 민족 인민의 공동 항일의 역사 내지 공동 혁명사로 기억하고 재현함으로써 오늘날의 조선족들로 하여금 민족적 자부심과 함께 조선족이 중국 항일사 내지 혁명사의 떳떳한 한 주체였음을 상기하도록 한다. 공동의 항일사, 혁명사로부터 조선족이 중국 근대사의 떳떳한 주체라는 인식은 곧바로 조선족의 중국적 소속감과 중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과 강조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적 소속감에 대한 강조는 한중 수교와 함께 경제적 충격과 혈연적 유대관계 등으로 인해 국가적 정체성의 위기와 공동화 내지 해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족 사회에 대한 유력한 문학적 대응이다.

24) 조선의용군 발자취 집필조, 『중국의 광활한 대지우에서』, 연변인민출판사, 1987, 748~749쪽.

4. 전쟁 영웅에서 중국의 소수민족 간부로의 성장

평전, 회고록, 전기의 전반부가 조선족 영웅의 호출을 통한 중조 두 민족의 공동항일투쟁사에 대한 기억과 재현이라면 후반부는 이들 전쟁 영웅들이 중국의 소수민족 간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딪친 민족적인 것과 국가적인 것의 관계문제,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중국 속의 국민, 중국의 한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의 위상을 정립하고 조선족 사회를 중국이라는 국가적 틀 속에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했는지를 재현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다시피 조선족의 영웅들이 중국의 항일전쟁에서 피 흘려 싸운 것은 중국에서 일제를 몰아내고 중국 항전의 승리를 이룩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연안에서 일제의 패망 소식을 전해 듣자 그들은 하루빨리 조국 조선으로의 귀국을 열망하게 된다. 일본의 패망 소식을 전해 듣고 흥분 속에서 밤을 새워 조선의 용군행진곡 “조국향해 앞으로”를 창작하였다는 것에서, 그리고 “일제가 패망하였으니 이제 조국으로 돌아간다고 있는 돈을 다 털어 술을 사오고 발에 나가 채 익지도 않은 참외며 수박이며 일년감을 따다가 차려놓고 춤추고 노래하며 승리를 경축하였다”²⁵⁾는 것에서 우리는 조선의용군전사들의 귀국에 대한 열망을 볼 수 있다. 그들이 비록 중국에서 항일전쟁에 투신하고 있었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조국 조선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광복 당시, 팔로군 측의 수요로 인해 조선의용군과 함께 동북으로 진군하지 못하고 태원에 남아있던 최채는 당시의 안타까운 심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나는 조선의용군을 따라 동북을 경유해 조선으로 나갈 생각으로 마음이 잔뜩 들떠 있었답니다. 조선에서 만나자는 편지를 상해에 보냈으므로 벌써 고향으로 돌아간 식구들이 손꼽아 기다릴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25) 김형직 주필, 『격정세월-문정일 일대기』, 앞의 책, 114쪽.

하룡은 조선의용군과 조선독립동맹을 통해 내가 남을 것을 건의했던겁니다...”²⁶⁾

6살 나던 해, 할머니, 어머니, 동생과 함께 독립운동가 아버지를 찾아 상해로 망명하였고 상해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중국에서 성장하고 활동했으며 중국인 여인을 아내로 맞은 최채였지만 광복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 조선으로의 귀국을 서둘렀고 식구들에게 조선에서 만나자는 편지를 쓴다. 그의 중국인 아내 역시 당연한 듯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시택 식구들과 함께 귀국선에 오른다. 그런데 조직의 수요로 결국 태원에 남게 된 최채는 우여곡절 끝에 귀국 비준을 얻으려고 동북에 이르지만 거기서 주덕해를 만나 그의 간곡한 부탁으로 할빈의 조선의용군 제3지대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때의 귀국에 대한 그의 간절한 희망과 안타까운 심정을 평전은 “몸은 비록 할빈에 있었고 말은 사업으로 눈코뜰새없이 분망했지만 연안을 떠날 때 이미 조선에 간 그의 마음은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주덕해에게 여러번 조선으로 가려는 의사를 밝혔다”²⁷⁾고 쓰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조국으로의 간절한 귀환 열망은 동북 심양에 이르러 광복 당시 조선에 진군하여 조선을 해방하고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에 의해 좌절하게 된다. 그리하여 조선독립동맹의 극 소수의 주요 간부들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고 무장단체인 조선의용군은 중국에 잔류하면서 부대를 확충하고 조선 진출을 대기하게 되었다. 주덕해는 의용군 제3지대 정치위원으로 할빈으로 진출하여 북만의 조선인을 조직하고 의용군을 확군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다. 문정일은 단동을 통해 의용군 부대가 귀환하는 길이 소련군에 의해 막히자 연변을 통해 조선으로 나가는 길을 열기 위해 파견된 의용군 선발대의 일원으로 연변으로 오게 되며 당시 조선인 간부가 급히 수요되는 연변의 수요에 의해 동북국의 지시로 조선의용군의 명칭을 동북민주련군으로 바꾸고 지방 간부로 부임하게 된다. 그리고 최채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주덕해의 간곡한 청과 당시 조선인 간부에 대한 절박한 수요에 의해 주덕해와

26) 류연산, 앞의 책, 155쪽.

27) 류연산, 위의 책, 163쪽.

함께 할빈에 남아 사업하게 된다. 일제의 전시치안법에 따라 구금되었다가 해방 이튿날에야 풀려난 립민호는 돈화에서 소련홍군을 도와 통역, 연락원을 하면서 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여 사업한다.

혁명과 조직의 수요에 의해 귀국을 접고 중국에 남아 중국공산당 당원으로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 사업하게 된 이들 조선족의 영웅들 앞에 놓인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광복 직후 귀환과 잔류로 혼란스러워진 동북의 조선인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중국공산당의 대 조선인 정책에 따라 동북 조선인들의 잔류를 유도하고 이들을 중국공산당의 이념에 동조시켜 동북에서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을 재빨리 확장 시키며 동북을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에 뚝으로써 동북의 해방근거지를 공고히 하여 국민당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는 역으로 동북에 잔류한 조선인의 삶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할빈으로 떠나기 위해 도착한 심양의 기차역전에서 주덕해 일행은 조선으로 귀환하기 위해 남부여대하고 기차역에 몰려든 초라한 행색의 수많은 조선인 피난민들을 만나게 된다.

“저렇게 정치없이 조선으로 가는 길만이 살길이 아니요, 이 땅에서 하루라도 빨리 저들의 합법적인 지위를 회복해야 하고 이들의 리익을 보호해주고 생명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

주덕해는 십년전 밀산에서 항일사업하던 시기가 생각났다. 그쪽에도 조선인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 여기 조선인들처럼 보짐을 메고 남부여대해서 조선으로 나가는지?…

광복을 전후하여 조선인들의 귀국이 이어졌는데 이 시기 귀국인수를 대략 50~100만 정도로 보고 있다.

북만은 동만과 달리 조선인들의 집단거주지가 밀도있게 형성되지 못하고 그만 큼 힘이 미약하다. 하기에 이들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한다.²⁸⁾

28) 최국철, 『주덕해평전』, 연변인민출판사·민족출판사, 2012, 102쪽.

주덕해는 할빈으로 부임하여 가는 길에 이미 광복 직후 조선인들의 혼란상을 목격하고 조선인 사회의 혼란을 잠재우고 조선인 사회를 안정시킬 방안을 고민하게 된다. “저렇게 정치 없이 조선으로 가는 길만이 살길이 아니”라는 주덕해의 말 속에는 중국 현지에서의 잔류 즉 지금까지 이루어온 중국에서의 삶의 기반을 지키는 것 역시 광복의 시점에서 동북의 조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삶의 방향이자 하나의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들어있었다. 따라서 주덕해는 이때부터 이미 중국 잔류 조선인의 합법적 지위 획득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덕해는 비록 국제공산당의 일국일당제의 원칙에 따라 1930년대 북만에서 지하당 사업을 할 당시 중국공산당에 가입했지만 그뒤, 연안시기에는 여전히 조선인의 신분으로 해외연구원과 조선혁명군정학교에서 사업하였다. 광복 후, 조선의용군 수뇌부의 결정으로 중국에 남아 할빈에서 조선의용군 제3지대를 확군할 때도 부대의 명칭은 여전히 “조선의용군제3지대”였다. 그러나 1946년 동북지역 토지개혁 시기에 와서 국적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되었는데 이는 중국 잔류 조선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인 농민들이 토지를 획득하려면 중국의 공민권 즉 국적을 획득해야 하는 문제가 우선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시 중공 연변지위서기를 역임했던 한족 간부 유준수는 조선반도와의 혈연적 및 심정적 유대관계 등 동북에 잔류한 조선인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이들 조선인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할 것을 당중앙에 건의하였고 중앙의 비준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주덕해는 이 문제에서 유준수에 비해 훨씬 단호하였는데 그는 중국에 잔류한 조선인들이 중국의 공민임을 부인한다면 즉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토지를 분여받을 자격도, 참군할 권리도, 참정권도 가질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중국 국적 취득이야말로 중국 잔류 조선인의 정확한 선택이자 삶의 방향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설정과 구상은 1948년 12월 길림성에서 소집한 민족사업좌담회에서 ‘민족구역자치’라는 훨씬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회의는 중공중앙에서 길림성위에 위탁하여 주로 연변 및 동북 기타 지구의 조선동포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당시 연변전원공서 전

원이었고 그후 1949년 초 북한에 돌아가 노동당 중앙간부를 지낸 립춘추는 연변을 조선에 귀속시켜야 조선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립민호는 소련의 방식대로 연변을 장차 가맹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 가지 의견에 주덕해는 동의하지 않았다.

“연변을 조선에 귀속시키지는 것이나 쏘련식의 자치공화국을 세우지는 것은 모두 연변경내에 사는 동포들의 력사와 현실에 립각하지 못한 추상적인 생각입니다. 중국의 국내사정이나 동북의 실정에서 실현될 수 없는 공론에 불과합니다. 조선의 귀속여부는 국가간의 문제로서 이 회의에서 토의될 수 있는 의제가 아니고 자치공화국을 세우지는 의견 역시 우리가 여기에서 토론하기에는 너무도 벽찬 의제로서 현재 중국국정에 맞지 않을뿐더러 장차 우리 민족의 자체 발전을 위해서도 불리하다고 봅니다. 민족문제에서 손중산과 레닌의 리론을 학습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 공산당의 령도밑에 우리 민족은 중국에서 실시할수 있는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방면에서 1947년 5월 1일에 성립된 내몽골자치구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연변은 중국의 령토이고 중국공산당의 령도 아래 탄생할 신중국정부의 지방정부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²⁹⁾

주덕해는 중국 잔류 조선인의 삶의 방향으로 ‘민족구역자치’를 제시하며 이것이야말로 연변 경내에 사는 동포 즉 조선인들의 역사와 현실에 입각한 것이고 중국의 국내 사정과 동북의 실정에 근거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연변 경내에 사는 조선인들의 역사란 바로 동북 조선인의 근 반세기에 걸치는 동북 이민사, 개척사, 정착사를 가리키는 것일텐데 여기에는 화룡현에 이주해 정착했던 주덕해 본인의 가족사도 포함되어있다. 이처럼 이주민의 이민사, 개척사, 정착사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위만주국시기의 ‘북향정신’³⁰⁾ 내지 ‘북향의지’와 맞닿아 있는데 위만주국의 붕괴로 북

29) 최국철, 『주덕해평전』, 앞의 책, 2012, 203~204쪽.

30) 위만주국 시기, 안수길을 비롯한 재만 조선인 작가들이 내세웠던 만주에 정착하기, 만주에 제2의 고향을 건설하기 등 이념적 주장을 일명 북향정신이라고 한다. 이는 1930년대 초, 간도 용정에서 결성된 재만 조선인 문화 동인회 “북향회”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하다.

향정신의 허상(虛像)이 여지없이 드러났다³¹⁾면 ‘민족구역자치’는 이러한 북향정신의 허상을 극복하고 넘어선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었다. 위만주국 시기 ‘북향정신’이 일제의 침탈로 세워진 위만주국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그 역사적 안목을 상실한 지극히 소박한 허상에 불과했다³²⁾면 ‘민족구역자치’는 일제를 몰아내고 영토적 수복을 이룩한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정책이라는 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역사적 전망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반년전인 1947년 5월 1일에 성립된 내몽골자치구가 그 유력한 현실이자 보기라는 것이다. 조선인의 현실이란 바로 광복의 시점에서 조선반도로의 귀환을 포기하고 중국에 잔류한 조선인의 이념적 선택의 문제와 중국 공민권 취득 문제 등을 가리킬 것이다. 중국 국내의 사정과 동북의 실정이란 국공내전과 이후 중국공산당의 건국 및 그에 따르는 정치제도 등을 가리킬 것이다. 이런 상황에 근거하여 주덕해는 립춘추가 주장한 연변의 조선 귀속설과 립민호가 주장한 소련식 가맹공화국설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주덕해는 동북에 잔류한 조선인이 중국공산당의 이념을 수용하고 새중국의 건국에 기여함으로써 중국의 공민권을 획득하고 토지를 분여 받아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향후의 삶의 방향이자 안정적인 발전의 길이라고 보았다. 그 연장선 상에서 ‘민족구역자치’는 중국의 공민이면서 동시에 소수민족의 자치와 권리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중국이라는 국가적 정체성 속에서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라고 보았다.

중국공산당 수뇌부 연안에서 활동했던 조선의용군 출신 주덕해가 동북 조선인들의 중국 공민권 획득을 전제로 한 ‘민족구역자치’를 제시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후보중의 요청으로 김일성의 파견을 받고 연변의 전원으로 왔던

31) 김재용, 『중일전쟁 이후 제일본 및 제만주 조선인 문학의 분화와 식민주의 협력』, 『제일본 및 제만주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도서출판 역락, 2004; 한수영, 『친일문학 논의와 ‘제만조선인문학’의 특수성』, 『제일본 및 제만주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도서출판 역락, 2004; 김종호, 『1940년대 초기 만주 유민소설에 나타난 ‘정착’의 의미- 『대지의 아들』과 『북향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5, 국어교육학회, 1993; 정현숙, 『안수길의 『북향보』론』, 『한국언어문학』 54, 한국언어학회, 2005; 김미란, 『만주, 혹은 자치에 대한 상상력과 안수길 문학』, 『상허학보』 25, 상허학회, 2009; 이해영, 『偽滿洲國 조선계 작가 안수길과 ‘민족협화’』, 『국어국문학』 172, 2015.9.

32) 김종호, 『1940년대 초기 만주 유민소설에 나타난 ‘정착’의 의미- 『대지의 아들』과 『북향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5, 국어교육학회, 1993, 221~225쪽 참조.

림춘추가 연변의 북한 귀속을 주장했던 것이나 소련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출신의 립민호가 소련식 가맹공화국을 주장했던 것은 모두 동북에 남은 조선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그 자신의 경험에서 출발해 나름의 진지한 고민을 거친 결과였을 것이다. 결국 립춘추는 새중국 건국 이전 북으로 귀환했고 립민호는 중국공산당 당원으로 기꺼이 ‘민족구역자치’를 받아들이고 연변대학의 부교장을 역임하여 연변 조선족의 교육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 사실 조선공산당 출신으로 소련의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서 4년간 유학했으며 혁명을 위해 다시 조선 국내로 파견될 때, 한푼이 안된 아들을 소련의 고아원에 두고 귀국했던 립민호의 경우는 이미 국제주의정신으로 고양되어있었으므로 고향이나 조국, 민족 등을 넘어선 국제주의적 시각에서 피압박 민족의 해방과 혁명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돈화에서 “8·15”를 맞은 그가 귀국 대신 소련홍군을 찾아 그들을 돕는 통역과 연락원의 일을 맡았고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고 중국에 남아 조선족 자치구의 건설과 민족대학인 연변대학의 건설에 투신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처럼 평전과 회고록은 광복 직후, 복잡한 국제관계의 역학 속에서 타의에 의해 귀환을 포기하고 중국에 남은 조선족의 전쟁영웅들이 중국 잔류 조선인의 정착과 중국 공민으로의 전환을 이끌어가면서 중국 속의 조선족 사회공동체를 만들어갔던 지난한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잔류 조선인이 중국 속의 소수민족-중국 조선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자 중국에 남은 조선족의 전쟁영웅들이 중국의 소수민족 간부로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기억과 회고를 통해 조선족의 역사적 인식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5. 국가적 정체성 속의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

조선족의 전쟁영웅들은 오로지 조국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낯선 이국땅 중국에서 항일전쟁에 투신하여 목숨 걸고 싸웠지만 광복 직후의 국제정

세의 역학관계로 그들은 정작 해방된 조국 조선으로 귀환할 수 없게 되었다. 조국으로의 귀환의 길이 막혔을 때, 그들 앞에 제시된 새롭고도 중대한 과제는 중국 동북에 잔류한 120만에 가까운 조선인들의 안치 문제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문제였다. 중국에서 민족단위로서의 삶의 기반을 확보하고 민족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민족구역차이였고 그들 역시 소수민족간부로 스스로 성장해가야 했다. 이제 조선은 더 이상 그들에게 조국이 되어서는 안되었고 그들의 현실적 삶의 공간이자 오랫동안 이국 타향이었던 중국이 새로운 조국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으며 그들은 더는 항전시기 중국의 국제주의 전사, 해외인사가 아닌 중국의 국민으로 되었다. 조선인에서 중국 국민으로,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스스로 완성해야 했고 조선인 사회 전체의 전환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당면 과제였다.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지는 그 뒤의 역사적 진척과정이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건국 초기 조선족 간부, 지식인 계층에 만연했던 ‘다조국론’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조선과의 혈연적 유대관계로 하여 중국에 남아 중국의 국민이 된 많은 조선족들은 간부, 지식인 계층을 포함하여 조선과의 심정적 유대관계를 끊기 어려워했으며 중국에 대한 국가적 귀속감이 열은 등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 일례가 바로 당시에 만연한 ‘다조국론’ 내지 ‘다국적론’이다. 즉 “무산계급의 조국은 소련이고 민족의 조국은 조선이며 현실의 조국은 중국”이라는 것인데 이는 비록 조선민족이지만 조선이 아닌 중국에 거주함으로써 하여 생긴 민족과 국가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민족국가라는 틀에서 벗어남으로써 하여 생긴 정체성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해 주덕해는 ‘다조국론’은 그릇된 관점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주덕해는 “연변은 조국과 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며 조선족은 조국의 여러 민족 대가정의 한 성원이므로 반드시 당의 민족정책에 따라 새 연변을 잘 건설해야 한다”³³⁾고 지적하였는데 여기서 조국은 물론 중국을 가리킨

33) 《주덕해의 일생》 집필조, 『주덕해의 일생』, 앞의 책, 228쪽.

것이였다. 이어 주덕해는 연변조선족자치구의 창립을 두고 “자치구의 창립은 하루아침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우리는 100여년을 준비하여왔습니다.”³⁴⁾고 감개무량하여 발언하였다. 이는 조선족의 이민과 개척, 정착 그리고 중조 두 민족의 공동항일의 역사, 국내해방전쟁에의 투신 등 조선족의 100여 년의 이민사에 대한 회고였으며 조선족의 100년의 이민사를 중국 역사 속에서 조망해보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다조국론’, ‘다국적론’은 건국의 시점으로부터 8년이란 시간이 흐른 1957년 민족정풍 운동 시에도 여전히 조선족의 일부 간부 및 지식인들의 사상적 문제로 지적되는데 이는 조선족의 조선에 대한 민족적 감정의 지양과 중국적 소속감의 육성이 상당히 굴곡적이고 어려운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조선족의 역사를 중국 역사 속에 편입시키고 조선족의 위상을 중국의 공민으로,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는 와중에 조선족의 간부들은 조선족 군중들로부터 몰이해와 억울한 비판을 당하기도 하였다.

당 건설방면에서 조선족이 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은 조선족이 ‘독립성’, ‘주체성’ 및 ‘민족적 자부심’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족 간부들이 “노예 근성”이 있어 민족 이익을 (공산당)중앙에 팔아먹어서 조선족은 “멸망”의 길에 빠져있다.³⁵⁾

이는 1957년 민족정풍 운동 시에 일부 조선족 군중들에 의해 제기된 의견인데 중국 지도부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독립성’, ‘주체성’, ‘민족적 자부심’의 결핍이라는 의견은 이 시기에 와서도 조선족이 여전히 중국에 대한 국가적 소속감보다는 민족 단위의 강한 결속력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족 간부들의 ‘노예근성’, 조선족의 ‘멸망’ 등 상당히 수위 높은 발언은 역으로 이 시기에 조선족의 간부들이 조선족의 중국적 소속감을

34) 《주덕해의 일생》 집필조, 『주덕해의 일생』, 위의 책, 230쪽.

35) 박종철, 『중국의 민족정풍운동과 조선족의 북한으로의 이주』,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3권 제3호 (통권 36호), 한중사회과학학회, 2005, 162쪽.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일부 조선족 군중들이 심정적으로 여전히 조선에 대해 강렬한 민족적 감정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 조선족 간부들의 곤혹스러운 처지와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중국에 잔류한 조선인들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되는 것이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으나 정작 민족 구성원들은 그것을 민족에 대한 배신이라고 낙인 찍었던 것이다.

새중국의 발전과정 역시 순탄하지 않았는데, 1956년 반우파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대약진,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운동, 그리고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에 이르는 문혁 등 정치적 격변 속에서 조선족의 간부들은 ‘우파’, ‘민족주의자’, ‘조선특무’ 등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온갖 박해를 받았다. 주덕해는 문혁시기 ‘지방민족주의분자’, ‘매국적’,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 ‘반역자’ 등 누명을 쓰고 연변에서 멀리 떨어진 호북의 농장에서 비참한 생을 마감하였다. 최채 역시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자 길림성에서 ‘민족주의분자’, ‘조선간첩’,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는 집권파’ 등 갖은 누명을 쓰고 투쟁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였으며 농촌으로 ‘정배’를 가게 되었다. 문정일 역시 갖은 고초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립민호는 일제시기 서대문 감옥에서 옥살이를 한 것이 죄로 되어 ‘변절자’의 죄명과 함께 또 소련의 고아원에 두고 온 큰 아들과의 관계로 ‘소련간첩’의 죄명을 쓰고 참혹한 박해를 받아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그 험악한 ‘문혁’의 외중에 온갖 박해를 받다가 간신히 해방된 최채는 평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조선특무’요, ‘민족주의분자’요 하는 일토당도 않은 죄목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고향이 조선입니다. 내가 태를 묻은 곳이고 우리 조상의 뼈가 묻힌 땅이지요. 조선이 수정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고향이 조선인 것은 변함없지요. 그리고 고향을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입니다. 고향에 대한 사랑은 죄가 될수 없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간첩혐의를 받는다면 진정 억울한 일이지요. 나는 민족사무위원회 주임으로서 성내의 여러 소수민족들을 고루 돌봐야 하는 책임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소수민족의 고충과 어려움을 제때에 발견하

고 상부에 알려 빨리 해결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수민족의 립장에 서서 문제를 보고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것을 절대로 주체민족인 한족에 대한 고의적인 도전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나는 조선족이고 민족독립운동가 출신으로 조선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가슴속에 짝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의식이 강한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렬한 민족의식이 내 민족과 여러 소수민족을 사랑하고 한족과의 융합속에서 화목하게 살아가게끔 한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민족주의모자를 씌우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³⁶⁾

최채는 현재 비록 중국 국적을 갖고 중국의 공민으로 살고 있지만 조선족 1세대인 자기 세대가 태어난 곳이 조선이고 조상의 뼈가 묻힌 곳이 조선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조선이 현재의 조국인 중국이 싫어하는 ‘자본주의’든 ‘수정주의’든 즉 중조 관계의 여하에 상관 없이 자신의 고향인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며 고향에 대한 사랑은 죄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또한 그 자신이 조선족 즉 소수민족 출신이자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주임 직책을 맡고 소수민족을 돌보아야 하는 자리에 있었으므로 소수민족의 입장에서 문제를 사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것을 주체민족인 한족에 대한 고의적인 도전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최채의 주장이다. 중국에서 소수민족과 주체민족인 한족과의 관계에 대해, 오랜 소수민족 간부 출신으로 자신의 경험과 민족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심사숙고 끝에 내린 명쾌한 결론이었다. 그는 강렬한 민족의식이 민족분열을 조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민족과 기타 소수민족을 사랑하고 주체민족인 한족과의 융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적 동력이라고 보았다.

해방 후, 연변전원공서 전원, ‘항미원조’를 거쳐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직책을 맡고 조선족 그리고 전국의 소수민족 관련 업무를 관장했던 문정일 역시 조선족 간부라면 우선 조선족인민을 사랑하고 조선족인민을 위해 성

36) 류연산, 앞의 책, 209~210쪽.

심성의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물론 나의 주위에는 군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조선족들의 일에 너무 발벗고 나선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조선족간부이다, 조선족간부가 조선족들의 일에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는가고 말하였다. 나는 이렇게 인정한다. 조선족간부라면 우선 조선족 인민을 사랑하고 조선족인민을 위해 성심성의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공산당이 한족간부가 없어서 소수민족간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다.³⁷⁾

이처럼 문정일은 소수민족간부가 자민족 혹은 소수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결코 민족 단결이나 국가의 통합에 불리한 것이 아니며 소수민족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중국공산당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공산당이 한족간부가 없어서 소수민족간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정일의 주장은 소수민족간부의 직책이 구경 무엇인지 그리고 소수민족간부와 중국공산당의 관계가 구경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며 단번에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다. 소수민족의 입장에서 문제를 사고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소수민족의 입장을 적시적으로 중국공산당 측에 반영하여 중국공산당과 소수민족의 원만한 소통과 관계를 보장하고 소수민족의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민족단결과 국가의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소수민족간부의 직책이라는 것이다.

최채의 평전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고 있다.

중국은 다민족국가입니다. 민족화합은 국가 안정과 발전의 전제입니다. 모든 소수민족 간부들은 민족의 운명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사업해야 할 것입니다.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영달만을 이는 편협한 민족간부는 자격이 없어요. 주덕해처럼 민족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간부야말로 진정한 당의 소수민족지도

37) 김형직 주필, 『걱정세월-문정일 일대기』, 앞의 책, 305쪽.

자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³⁸⁾

최체는 다민족국가인 중국에서 민족화합은 국가 안정과 발전의 전제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모든 소수민족 간부가 이 전제 속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민족을 위해 헌신 할줄 아는 합격된 소수민족지도자로 되기 위한 전제는 민족화합을 통한 국가 안정과 발전의 큰 틀이라고 본 것이다. 이처럼 해방 후 조선족의 간부 즉 소수민족의 간부가 된 조선족의 전쟁영웅들은 민족구역자치를 통해 중국이라는 국가적 틀 속에서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하려고 하였다. 즉 국가적 정체성 속에서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조선족의 향후 나아가야할 길, 발전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6. 결론

본고는 한중 수교 이후, 집중적으로 등장한 조선족 명인 전기, 평전, 회고록이 실은 80년대 조선족 문단을 역류한 혁명서사의 한 형태로, 한중 관계 서사가 주류로 된 이시기 조선족 문단에 하나의 경향으로 등장했음을 주목하였다. 한중수교는 조선족의 대규모 인구이동을 유발하였고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조선족 사회에 큰 도움이 되었다. 동시에 조선족 인구의 일방적 유출은 조선족 농촌마을의 공동화(空洞化), 도덕성과 윤리성의 훼손, 자녀교육의 파탄 등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으며 어제날의 조선족 공동체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였고 중국 조선족들은 전례 없는 국가적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본고는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의 명인 전기, 평전, 회고록의 대거 등장이 이러한 조선족 공동체의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문학적 대응이라고 보았다.

38) 류연산, 앞의 책, 247쪽.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이주민 1세대로서 조선공산주의자로부터 중국공산당 당원에 가입, 중국의 항일전쟁에 투신하고 항전 승리 후, 중국에 남아 조선족 사회의 건설에 구심점 역할을 했던 세 명의 조선족의 영웅 주덕해, 최채, 문정일 및 광복직전까지 조선공산주의자로 조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고 다시 중국에 돌아와 조직을 찾다가 해방을 맞고 그대로 중국에 남아 중국공산당에 가입, 조선족 사회 건설에 기여했던 립민호의 전기, 평전, 회고록을 중심으로 이러한 조선족의 영웅의 호출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호출된 이들 영웅들이 구상했던 조선족 사회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평전과 회고록은 조선족의 영웅을 호출함으로써 그들의 혁명사를 통해 중조 두 민족인민의 공동 항일의 역사를 회고하고 중국의 항전에 대한 조선족의 공헌과 기여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족의 광복 이전의 역사를 중조 두 민족 인민의 공동 항일의 역사 내지 공동 혁명사로 기억하고 재현함으로써 오늘날의 조선족들로 하여금 민족적 자부심과 함께 조선족이 중국 항일사 내지 혁명사의 떼떽한 한 주체였음을 상기하도록 하였다. 공동의 항일사, 혁명사로부터 조선족이 중국 근대사의 떼떽한 한 주체라는 인식은 곧바로 조선족의 중국적 소속감과 중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과 강조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적 소속감에 대한 강조는 한중 수교와 함께 경제적 충격과 혈연적 유대관계 등으로 인해 정체성의 위기와 공동화 내지 해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족 사회에 대한 유력한 문화적 대응이었다.

평전과 회고록은 또한 광복 직후, 복잡한 국제관계의 역학 속에서 타의에 의해 귀환을 포기하고 중국에 남은 조선족의 전쟁영웅들이 중국 잔류 조선인의 정착과 중국 공민으로의 전환을 이끌어가면서 중국 속의 조선족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갔던 지난한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잔류 조선인이 중국 속의 소수민족-중국 조선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자 중국에 남은 조선족의 전쟁영웅들이 중국의 소수민족 간부로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기억과 회고를 통해 조선족의 역사적 인식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해방 후 조선족의 간부 즉 소수민족의 간부가 된 조선족의 전쟁영웅들은

민족구역자치를 통해 중국이라는 국가적 틀 속에서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국가와 민족의 관계에 대해 치열하게 사유하였는데 소수민족간부가 자민족 혹은 소수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결코 민족 단결이나 국가의 통합에 불리한 것이 아니며 소수민족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중국공산당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국가적 정체성 속에서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조선족의 향후 나아가야 할 길, 발전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형직 주필, 『격정세월-문정일 일대기』, 민족출판사, 2004.
 류연산, 『불멸의 영령-최채』(중국조선족명인평전시리즈), 민족출판사, 2009.
 _____, 『불멸의 지사 심어추평전』(인물조선족사1), 연변인민출판사, 2002.
 조선의용군 발자취 집필조, 『중국의 광활한 대지우에서』, 연변인민출판사, 1987.
 《주덕해의 일생》 집필조, 『주덕해의 일생』, 연변인민출판사, 1988.
 최국철, 『주덕해평전』, 연변인민출판사·민족출판사, 2012.

2. 논문

- 管延江, 『中國延邊地區對韓國勞務輸出問題研究』, 연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김미란, 『만주, 혹은 자치에 대한 상상력과 안수길 문학』, 『상허학보』 25, 상허학회, 2009.
 김재용, 『중일전쟁 이후 재일본 및 재만주 조선인 문학의 분화와 식민주의 협력』,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도서출판 역락, 2004.
 김중호, 『1940년대 초기 만주 유민소설에 나타난 '정착'의 의미-「대지의 아들」과 「북항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5권, 국어교육학회, 1993.
 권태환·박광성, 『조선족의 대이동과 공동체의 변화: 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권태환 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박경화·박금해, 『민족과 국민사이: 조선족의 초국가적 이동과 민족정체성의 갈등』, 『한국학연구』 3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朴勝鎮, 『中韓建交對朝鮮族人口流動的影響』, 『黑龍江民族叢刊』 133, 2013.
 박중철, 『중국의 민족정동운동과 조선족의 북한으로의 이주』,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3권 제3호(통권 36호), 한중사회과학학회, 2005.
 安成浩, 『朝鮮族鄉村社會的集中村建設及其社會共同體的質變』, 『當代韓國』 2014년 제2호, 2014.
 이병기, 『연변 조선족 농촌사회의 인구이동 실태와 그 시사점』,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3권 제3호,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06.
 이해영, 『偽滿洲國 조선계 작가 안수길과 '민족협화』』, 『국어국문학』 172, 2015.9.
 鄭信哲, 『中國朝鮮族發展現狀與對策』, 『民族發展藍皮書——中國民族發展報告(2001-2006)』(郝時遠·王希恩 編),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정현숙, 『안수길의 『북항보』론』, 『한국언어문학』 54, 한국언어문학회, 2005.
 한수영, 『친일문학 논의와 '재만조선인문학'의 특수성』,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도서출판 역락, 2004.

中韓建交以後朝鮮族的革命敘事創作與國家認同強化

任秋樂* · 李海英**

中韓建交後大量湧現的朝鮮族名人傳記、評傳、回憶錄等,實際上是對80年代朝鮮族文壇逆流之風——革命敘事的一種延續,同時也是面對建交後朝鮮族共同體出現的國家認同危機做出的一種文學回應。鑒於此,本文以四位朝鮮族英雄——朱德海、崔采、文正一、林民鎬的傳記、評傳以及回憶錄為例,闡明了朝鮮族英雄人物塑造的意義,並以此為基礎,探究了這些英雄所構想的朝鮮族社會的發展方向。

評傳與回憶錄通過描寫朝鮮族英雄的革命經歷,回顧了中朝兩族人民共同抗日的歷史,進一步明確了朝鮮族對中國抗戰做出的犧牲與貢獻。共同的抗日革命經歷表明朝鮮族作為堂堂正正地一員參與了中國現代史,這也確認了朝鮮族作為中國公民一員的國家認同和對中國的歸屬感。這種對中國歸屬感的強調,是對正在經歷認同感混亂、共同體空洞化乃至解體危機的朝鮮族社會有力的文學應對。

另外,對於抗戰勝利之後,面對複雜的國際形勢選擇放棄回歸朝鮮半島、留在中國的朝鮮族抗戰英雄帶領朝鮮人在中國定居、成為中國公民並建立朝鮮族社會共同體的艱難歷程,評傳與回憶錄也做了詳細敘述。這是選擇留在中國的朝鮮人轉變為中國少數民族之一——中國朝鮮族的過程,同時,也是留在中國的朝鮮族抗戰英雄成長為中國少數民族幹部的過程。通過對這些歷史記憶進行喚醒與回顧,有助於明確朝鮮族的歷史認識。

抗戰勝利後,朝鮮族幹部,即成為少數民族幹部的朝鮮族抗戰英雄,試圖通過民族區域自治在中國這一框架體系之下保留朝鮮族的民族認同。他們對國家與民族的關係進行了深刻思考,認為少數民族幹部為本民族或少數民族努力工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Ocean University of China

作並非不利於民族團結、國家統一。也就是說,在國家認同的大前提下保存和發展朝鮮族的民族認同,是朝鮮族未來的道路和發展方向。

關鍵字：朝鮮族文學,革命敘事,朱德海評傳,崔采評傳、文正一生平傳記、林民鎬評傳